

Youngeun News

동행

1월

2025년 461호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1866년 9월 5일 순교.

하나님이 세우시고

-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회.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의 제안으로 이윤영 목사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나라, 대한민국.

회개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 121:7) 

〈글 · 사진 : 서현이 기자〉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월간 동행 영은 홍보부

1984년 4월 27일 창간

발행일 제461호 / 2025. 1. 5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전화. 02-2676-7171~2

월간 동행 E-mail. yemagazine@naver.com

발행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집인 김석진 장로

편집차장 김창원 안수집사

서선이 권사

편집 서선이 김경원B 윤정림

기자 김명희C 서현이 이숙경

사진기자 허영준

디자인 디자인 샘

월간 동행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2025년 「월간 동행」 사역자 모집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생생한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월간 동행과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CONTENTS

02 그림이 있는 풍경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 / 서현이 기자

04 생명의 말씀

성숙함을 나타내라 / 이승구 담임목사

07 믿고 알고 알고 믿고

장 칼뱅과 경건 / 이찬양 목사

08 동행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크리스천 에니어그램'의 필요성 <1> /

이규민(장신대 객원교수, 한국통합교육연구소 소장)

10 신년대담

영은, 색을 입히다(Color) / 서선이·이숙경 기자

12 웹진 동행

중보기도 산상기도회를 마치고 / 이예한 집사

엘림여성중창단 특송 연주 / 박미리 권사

영은교회 사역 및 행사 현황 / 김우철 장로

15 영은 소식

사랑이 오셨대! / 김명희 기자

2025년 유스비전 30기, 7명 선발 / 김명희 권사

영은교회가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 한진구 목사

18 은퇴 소감문

은퇴 소감문

21 슬기로운 교회생활

교회언어 바로잡기 / 최광주 목사

22 신앙의 유산 특집

영은설악센터 건축개념 <1> / 한광호 건축사(예시건아이디엠)

24 교회안내

새해 첫 예배 / 허영준 기자

「월간 동행」에서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월간 동행 이메일(yemagazine@naver.com)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편집회의 검토한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함을 나타내라

(디모데전 4:15~16)



글 | 이승구 담임목사

■ 미숙함에 머물다

어느 시인이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난 왜 시대 문제, 민족과 인류 문제에는 분노하지 못하면서, 사소한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걸까?”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사소한 일로 쉽게 감정이 상할 때 스스로 미숙하다고 느낍니다. 또한 ‘말’과 관련되어 미숙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비롯해 말에 미숙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욕심’과 관련된 미숙함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관계에 벽이 생기고, 공동체에서 갈등을 일으키며, 나눔보다 소유에만 집착할 때 ‘나는 여전히 미숙하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성숙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미숙함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것은 회심이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씨를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벧전 1:23/새번역)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벧전 2:25/새번역)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 길 잃은 양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 받고, 부활로 영생 얻는다는 복음을 영접한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거듭남은 없고, 교인이라는 이름만 있고 교회 문화와 같은 종교 행위에만 익숙한 체한다면 계속 미숙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숙함은 가시나무 같은 속사람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말씀 받는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밭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전서 4:15~16)

이 중 가시떨기(막 4:17~18)에 해당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간절함도 있고, 사모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외에 다른 것도 함께 들어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막 4:19)”입니다. 여기서 ‘막는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질식시키다’ 또는 ‘제압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은 말씀을 질식시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청년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달려와서 꿇어앉아’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물었습니다. 배우는 자로서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청년은 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며, 곧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좇으라’ 요구하셨을 때 그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슬픈 표정을 짓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재물의 욕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질식시키니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염려나 욕심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들어온 염려나 욕심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말씀을 질식시켜 성숙과 멀어지게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조급하기 때문에 미성숙합니다. 신앙의 성숙에 이르는 속성 과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조급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즉시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광야에서 오랜 시간 훈련시키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바울의 회심 후 곧바로 다른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를 보내지 않으시고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셔서 3년을 칩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의 뒤꿈치를 잡는 야곱을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은 야곱의 영적인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단숨에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무려 20년이나 훈련시키셨습니다. 그에게도 성숙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조급합니다. 빠른 시간에 자신의 노력으로 영적 성장에 도달하려 하지만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집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성숙함을 나타내라

1) 자신을 살피라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살피야 합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딤후 4:16)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딤후 4:7)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 및 당시 로마 제국에서 유행하던 ‘그리스-로마 신화’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을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 없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태도를 지닌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따르는 사이에 영적 성숙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자신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단하라’로 번역된 단어는 ‘별거벗고 연습하다, 활기차게 연습하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가리고 있는 체면과 세상의 문화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자

신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자세가 몸에 배도록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자기중심성과 교만한 마음을 이겨내야 합니다.

2) 계속해서 살피라

“…이 일을 계속하라”(딤후 4:16)

성숙함에 이르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실수하고 실패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실수와 실패보다 큼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인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로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살필 때 비로소 성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살피고, 계속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삶을 통해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장 칼뱅과 경건



글 | 이찬양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할하에서 교회의 지도자와 교역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장로회신학대학교의 학훈은 ‘경건과 학문’이다. 이것은 경건이 모든 배움과 훈련의 가장 앞자리에 위치해야 한다는 학문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학훈은 경건이 대한예수교장로회와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지역교회가 기본 가치로 삼아야 하는 우선적인 주제라는 것을 알려준다. 우리는 경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학의 근간이 되는 16세기 종교개혁자 장 칼뱅(Jean Calvin, 1509-1564)의 경건 이해를 통해, 경건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자 한다.

칼뱅의 경건 이해는 그의 주저인 『기독교 강요』에 선명하게 나타난다. 『기독교 강요』 초판에는 프랑수아 왕에게 보낸 서문이 첨부되어 있는데, 저자는 책의 서문에서 『기독교 강요』를 기록한 목적이 종교에 열심으로 감동된 자들이 참된 경건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원리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 1권 2장 서두에서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결합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리킨다고 정리한다. 이와 결을 같이하는 칼뱅의 경건 이해는 그가 작성했던 다른 주석서들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시편(119:78) 주석에서 참된 경건의 본질은 신자들의 두 가지 특질, 즉 경외와 아버지에게 드려지는 순종에 나타나 있다고 말하며, 경건은 경외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에스

겔(18:5) 주석에서 그는 경건이 사랑의 뿌리라고 말한다. 경건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을 의미하는데, 결국 이것은 사회 속에서 정의로운 삶을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칼뱅의 경건은 ‘신인 관계-통합적’(Theoanthropo relatio-integrate piety)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경험되는 전인격적 종교-심리적 실존이며, 일종의 ‘원초적 영성’(Prime spirituality)이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불러오며,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한편 그의 경건은 ‘타인을 향한 섬김’의 삶을 구현하는 에토스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이웃을 향한 섬김의 힘이기도 하다. 칼뱅의 경건 개념은 교회에서 출발하여 사회 속으로 흘러간다. 그는 “이제 개인적인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이 연합은 필연적으로 다른 지체와의 연합을 전제한다.”라고 말하며 모든 신자는 자신이 속한 국가와 사회도 함께 섬기는 경건한 삶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했다. 칼뱅은 ‘수직-수평적 측면’을 아우르는 통합적 차원에서 경건을 이해했다.¹⁾

우리의 경건 이해에는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가? 칼뱅의 경건 개념을 살펴보면 잊고 있던, 더 나아가 외면하고 있던 경건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고 더 나은 경건을 향해 정진하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1) 김광복, “장 칼뱅의 경건과 현대신학적 과제,” 『한국조직신학논총』 제36집 (2013), 51-63.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크리스천 에니어그램’의 필요성 <1>



글 | 이규민 목사
(장신대 객원교수,
한국통합교육연구소 소장)

영원한 마음의 고향 영은교회 <동행>지의 원고 요청이 진작 있었지만, 이제서야 쓰게 된 지각생의 송구한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30여 년 신학교 강의를 통해 통찰력이 검증된 ‘영성적 - 심리적 인간 이해’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크리스천 에니어그램의 필요성”이란 주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 있어서 크리스천 에니어그램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개괄적, 서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 선천적 자아 vs. 후천적 자아

속담처럼 회자되는 말 속에는 경험적, 성찰적 지혜가 녹아 있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사람 안 바뀐다”는 말도 있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사람 늙된다”라는 말도 있다. 이는,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모습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새해엔 달라지고 싶다”는 말도 있지만, “시간과 환경을 넘어 ‘참된 나’를 찾고 싶다”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본질의 나’와 ‘현상의 나’라는 두 축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감을 보여준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 영원한 미스터리이기도 하다. 인간을 만

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영원한 신비 자체이신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동방의 의인 욥은 이렇게 고백한다.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뵈을 수 없구나”(욥 23:8~9).

■ 위로부터의 ‘영적’ 접근 vs. 아래로부터의 ‘심리적’ 접근

욕이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은 후 하나님과의 대면이 이루어지자, 욥은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기 42:5~6). 하나님과의 대면은, 욥을 의롭게 하거나 교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회개와 겸손으로 이끄심을 볼 수 있다(욥 42:6). 잠언 기자는, 지혜와 명철의 근본은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단언한다(잠 1:7). 참된 지식과 참된 지혜에 대한 성경의 증언 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일”(엡 4:13)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 교육 - 영성 교육 - 기독교 교육의 요체이다. 이를 위해 창조주 하

나눔을 알아가며 배워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에 대한 배움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곧, 위로부터의 접근(영성적 접근)과 아래로부터의 접근(심리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함을 의미한다. 영성적 접근은 근원적 지혜를 보여주지만, 자칫 모호성에 빠지기 쉽다. 반면 심리적 접근은 과학적 설명을 가능케 하지만 자칫 기능주의와 공리주의의 한계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인간을 온전히 알기 위해선 ‘영적’ 접근과 ‘심리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에 대한 ‘영성-심리적’ 이해는 ‘에니어그램’이 잘 보여준다. 에니어그램은 ‘참된 나’, 본질적 나(영적 자아)를 볼 수 있게 해준다. 에니어그램은 ‘보여지는 나’, 현상적 나(심리적 자아)의 모습도 볼 수 있게 해준다. 신앙 및 인격 성장을 위해, ‘본질적 나’와 ‘현상적 나’ 사이에 나타나는 간극과 괴리를 좁혀 나가는 과정은 성화의 과정과도 일맥상통한다.

4상체질, 8상체질이 타고난 체질을 넷과 여덟 체질로 분류한다면, 에니어그램은 인간 유형을 크게 세 중심(머리-가슴-장) 유형으로 나누며, 각 중심마다 세 유형을 두어, 총 아홉 유형(탐구형 - 충성형 - 쾌활형 - 돌봄형 - 성취형 - 심미형 - 통솔형 - 평화형 - 완벽형)으로 분류한다. 이는 신경계 - 순환계 - 소화계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타고난 기질이 세 중심, 아홉 유형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에니어그램의 세 중심-아홉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행)



중심센터	중심에너지/기관	체격/인상	유형	특성
〈머리(사고)중심〉	뇌 - 신경계	간결, 명료, 건조	탐구형	탐구, 논리, 분석
			충성형	충성, 안전, 대비
			쾌활형	쾌활, 즐거움, 새로움
〈가슴(감정)중심〉	심장 - 순환계	원만, 따뜻, 부드러움	돌봄형	돌봄, 따뜻함, 관계성
			성취형	성취, 성공, 이미지
			심미형	심미, 상징, 진정성
〈장(본능)중심〉	위 - 소화계	강단, 묵직, 내공	통솔형	통솔, 힘, 관철
			평화형	평화, 중재, 편안함
			완벽형	완벽, 개선, 올바름

(다음 호에 계속)



2025년 신년을 맞이하여 이승구 담임목사님과의 대담을 통해 2025년의 표어 및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 영은교회의 거시적 표어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의 “베이식(Bassic)”으로, 2021년부터 철자를 차례로 따와 표어를 삼고 있다. 올해는 드디어 마지막 철자인 C로 시작하는 “컬러(Color) : 영은, 색을 입히다”로 정해졌다. 색을 입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올해 영은교회에서는 세상의 많고 많은 색 중에서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세 가지 색을 포인트로 삼고 세 영역으로 나누어 교회 활동을 해나가고자 한다.

빨간색은 주로 ‘열정’을 의미하는 색으로, 뜨거운 열정을 담아 참여해야 하는 예배와 교육 분야의 포인트로 삼았다. 파란색은 파란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의미해, 너그러움과 이해심으로 참여해야 할 전도와 선교 분야의 포인트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노란색은 병아리의 색, 어린 아이들의 색이다. 어린이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통통 튀는 즐거운 느낌을 준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자는 의미로, 봉사와 교제 분야의 포인트로 삼았다.

각기 다른 강렬한 색채를 지니고 있으나, 함께 섞이고 어우러지면 보다 다채로운 색을 만들어 낼 수 있다. 2025년 영은교회도 각 분야가 따로 또 같이 어우

러져 다채로운 색을 세상에 입힐 수 있기를 바란다.

2. 그렇다면 ‘컬러(Color) : 영은, 색을 입히다’라는 표어 아래, 2025년 영은교회는 어떤 활동을 진행할 예정인가?

▶ 예배 및 교육 (빨강)

(1) 예배 다짐 카드

예배의 열정에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하여, 2025년 송구영신예배 때는 말씀카드뿐 아니라 예배다짐카드를 배분했다. 예배다짐카드는 본인이 한 해동안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 다짐해 보는 카드이다. 단순히 마음만 가지고서는 실천하기 어렵다. 명명백백하게 정리하여 글로 남겨 두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열정이 잠시 식는 순간에도 다시 확인하고 불을 지필 수 있을 것이다.

(2) 찾아가는 온 세대 예배

그동안의 새학기 예배는 학생들이 본당으로 찾아와 예배를 드리곤 했다. 올해는 반대로 어른들이 아이들의 예배 장소에 찾아가, 교회의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교회에는 은퇴 후에도 교회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활동하시는 교인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분들과 각 교육부서를 연결하여, 어린이 주일 등의 행사

때에 선물도 나누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 하고, 함께 교육부 예배도 드리는 일정을 계획 중에 있다. 장년 부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 깊이 공감하고 중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전도 및 선교 (파랑)

(1) 전도하는 2030

현재 한국 교회는 전도가 어르신들의 유물처럼 되어 버렸다. 우리 교회도 화요노방전도는 그나마 젊은 분들이 종종 오시는데, 토요노방전도, 주일 전도는 교회의 어른 분들만 참여하고 있다. 전도 특강 등은 많은 이들이 참석하지만, 다들 이론만 습득하고 실천에는 소극적인 게 현실이다.

전도는 온 교회가, 온 성도가 나서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므로, 젊은 세대가 노방 전도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에 올해는 청년부 및 더누림 부서에서 1년에 두 번, 토요노방전도의 각 조에 함께 참석하고, 식사도 하고, 그동안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노하우도 전해 들으며 노방전도의 전통을 다음 세대로 이어 나가고자 한다. 전도 훈련과 참여가 젊은이들에게 낯설고 부담스럽겠으나, 그 경험과 배움이 훗날 향azon직이 되었을 때, 앞장서서 전도해 나갈 힘이 되리라 믿는다.

(2) 세계 선교 기행

EBS 시청자라면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는 세계 곳곳을 TV를 통해 가는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올해는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수요 예배에서 그 분들의 선교 보고 자리를 마련하여, 성도들이 보다 자주 ‘선교 기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순히 이야기를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가슴에 품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할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봉사와 교제 (노랑)

(1) 1인 1봉사

한 부서에서라도 교회 봉사를 하게 된다면 교회에 애착을 가지고 신앙 생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는 성도 1인 1봉사를 목표로 봉사할 수 있는 여러 부서를 소개하고 봉사 인원을 모집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2) 복음의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성도들의 교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올해부터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오후예배 시에 공동체 모임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배 시작 전에 번호표를 무작위로 배부, 예배 후 같은 번호를 가진 사람끼리 한 조가 되어 각 조에 배당될 교역자의 인도 하에 교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성도들은 보통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한 부서에서만 봉사를 하다 보니, 늘 만나는 사람, 아는 사람, 같은 시간대에 예배드리는 성도들하고만 교제하게 된다. ‘복음의 코이노니아’ 활동을 통해, 점점이 없던 성도들과도 교제하고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취재 : 서선이·이숙경 기자)



글 | 이예한 집사

중보기도 산상기도회를 마치고

11월 26일 화요일 아침, 중보기도팀의 「영은 300기 도용사」 114명은 이승구 담임목사님의 기도 후에 산상기도회를 위하여 영은설악센터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2시간여 정도 지나서 아름답게 지어진 영은설악센터에 도착하였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 투명한 십자가를 통하여 외부의 빛이 성전을 비추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찬양팀의 인도에 따라 “오늘 이 곳에 계신 성령님” 등 찬양을 마치고 1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 9:29)란 말씀을 중심으로 이승구 목사님께서 “왜 기도하는가!”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하셨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과 더욱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도 계획을 바꾸신다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더 기뻐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목사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한다는 말씀을 전하셨다.

1부 예배 후에, 장미애 전도사님의 인도로 2부 기도회를 시작했다.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영은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와 열방, 선교사들을 위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하여 참석자 모두가 하늘 보좌를 향하여 각자의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다. 조별로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다. 조원들과는 기도 사역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지만,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다. 기도회 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린다.



글 | 박미리 권사

엘림여성중창단 특송 연주



엘림여성중창단은 12월 4일 수요일 예배 때 특송으로 두 곡을 연주함으로써 2024년 활동을 마무리했다. 첫 곡은 12월 성탄 분위기에 맞춘 찬양으로 〈아름다운 종소리〉를, 두 번째 곡은 올 한해 본당 리모델링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곡을 연주했다. 〈2024 영은, 혁신하다〉란 교회 표어에 맞춰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경민 목사가 작곡한 〈주의 은혜라〉 찬양곡을 불렀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찬양이 울려 퍼지는 동안 성도님들이 깊은 감동으로

함께 해주시니 더욱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다. 올해 엘림여성중창단은 이날 특송을 포함하여 총 세 번의 특송 연주 시간을 가졌다. 6월에는 음영부 헌신예배에서, 9월에는 금요기도회에서 특송을 불렀다.

한 달에 두 번 주일 오후예배가 끝난 후 조한나 지휘자 선생님과 황지선 반주자 집사님의 지도로 재미있고 은혜로운 연습을 하고 있다. 엘림여성중창단은 단장 김영순 권사님을 중심으로 10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025년도에는 격년으로 준비하는 정기연주회를 할 계획이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기쁨을 누리고 싶으신 영은교회 여성 성도들의 적극적인 입단 참여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이 지면을 통해 부탁 드린다.



영은교회 사역 및 행사 현황 - 2019년~2024년 -

2024년 12월 15일은 이승구 목사님이 영은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지 5년이 된 날이다. 이승구 목사님을 중심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했던 교회사역 및 행사를 되돌아본다.

연도	표어	사역 & 행사
2019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빌립보서 2:12~14)	• 이승구 담임목사 취임예식 (12/15)
2020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요한복음 17:6,8)	• 주일 온라인 예배 시작/영상예배 송출 (3/1) • 영은가족 홈커밍데이 (9/23) • 이승구 담임목사 위임예식 (10/18)
2021	영은, 지경을 넓히다 (Broaden) (고린도전서 9:16)	• 중보기도부 신설 (1/3) • 젊은세대공동체 “더누림”(35세 이상 싱글) (1/3) • 24시간 릴레이중보기도회 “영은, 기도의 지경을 넓히다”(1/11~1/31) • 총동원전도 초청주일 (5/30) • 올백예배주일-작정자 761명 (6/20, 6/27) • 4부 예배를 “찬양과 경배가 있는 예배”로 드리기 시작 (10/1)
2022	영은, 함께 가다 (Accompany) (데살로니가전서 5:11)	• 올백심방(문고리 심방) 시작 (3월) • 비전센터 헌당 예배 (4/24) - 헌당 기념 13개 교회 (국내 11개, 해외 2개) 선정 1억 지원 - 헌당 기념 4개 신학대학교(장신대, 대전신대, 영남신대, 연세대신학대학) 3천만원 지원 • 젊은부부공동체 어울림 : “품안에, 뜰안에, 돌이서” 구분 (1/23) - 젊은부부공동체 어울림 시작(2018년 3월) • 동티모르 박성원 선교사 “1만 달러의 동행” (10월) - 동티모르 아파우르섬, 고등학교 교사 건축
2023	영은, 온전히 서다(Stand) (데살로니가전서 3:8)	• 전도부 신설 (1월) • 말레이시아 2대 선교사(구용회 선교사) 파송예배 (4/23) • 네팔 최지혜 평신도 선교사 “1만 달러의 동행”(6월) - 빨초교회 2층 증축 • 장신대 북한선교 장학금 협약식 / 1천만원 / 연건(2024~2033) (10/20) • 지역사회 커피 나눔 시작 (12/20)
2024	영은, 혁신하다(Innovate) (요한복음 1:50)	• 영은교회 스마트요람 모바일 시스템 변경 (1/1) • 태국 차잉라이 한인교회 비전센터 헌당 (3/9) - 2023년 건축현금 1억원 • 화요직장인 예배 시작 (4/2) • 올백데이(창립64주년)-KBS 아레나홀 (4/21) • 영은설악센터 헌당예식 (10/27) • 본당리모델링 감사 (11/10)
2025	영은, 색을 입히다(Color) (사도행전 10:2)	

자료제공 : 서무부 김우철 장로

사랑이 오셨다! - 2024 영은교회학교 성탄축하 발표회 -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5시, 본당에서 “사랑이 오셨다!”란 주제로 교회학교 성탄축하 발표회가 있었다. 교회학교 영아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총 13개 팀이 출연해 노래와 춤, 성극과 악기 연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무대에 올렸다.

성탄 축하 발표회는 1부와 2부로 진행됐다. 1부 예배에서는 교육1부 담당 이에리아 목사님이 “사랑이 오셨다”(마태1:21)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2부 성탄 축하 발표회가 진행됐다. 사회는 초등부 김희창 전도사와 초등부 신루아 어린이가 맡았다. 김희창 전도사님의 위트와 신루아 어린이의 명쾌한 진행이 청중을 사로잡았다.

2부는 유아부 손시유와 황채아 어린이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케익커팅식에는 이승구 담임목사님과 이에리아 목사님, 차재협 장로님, 유아부 류하준과 박주아 어린이가 참여했다. 교회학교 학생들의 발표에 앞서 중등부 지휘자인 홍승주 솔리스트(소프라노)의 “파체 파체 미오 디오(pace pace mio dio)”곡 연주가 있었다. 이후 영아부(20명)와 유아부(31명), 유치부(22명)의 위십 발표회가 있었다. 세 팀은 엄마, 아빠의 응원 박수를 받으며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초등학교 전 연령대의 어린이로 구성된 꿈자람부에서는 어린이 22명이 영어로 찬양하며 위십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

유년부(14명)에서는 위십을, 초등부(19명)에서는 블랙라이트 “기쁜소식”을 무대에 올려 청중의 갈채를 받았



다. 소년부(13명)는 무언극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를 연기했다. 토요학교에서는 남유찬, 방시운, 양예진 어린이가 클라리넷을 연주했다.

중등부(10명)는 성극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무대에 올렸다. 고등부(8명)도 성극을 발표했다. 교육 2부 소속인 청년부(16명)에서는 성극과 위십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순서로 영은교회 아동부 연합찬양대 65명이 “그 애기 들어봤니”란 찬양곡을 연주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번 성탄 축하 발표회는 웃음과 감동이 있었던 무대였다. 그 뒤에는 교사들의 헌신이 숨어 있었다.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가 보여준 성탄 축하잔치였다. 이날의 무대가 모두의 가슴에 영원히 간직될 최고의 성탄 선물이었길 기대한다. 

〈글 | 김명희 기자〉

2025년 유스비전 30기, 7명 선발



지난 12월 14일(토)에 7명의 청년이 <2025년 유스비전 30기>로 선발됐다. 1995년부터 2024년까지 코로나 1년(2021년)을 제외한 29년 동안 총 144명이 영은교회 유스비전 후원회의 이름으로 ‘꿈과 희망’을 안고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영은교회 유스비전은 청년들에게 일찍이 배낭여행을 통해 또 다른 세계를 보고 느끼며, 짧은 기간이지만 자기의 현 위치를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994년에 시작됐다. 유스비전은 영은교회 성도들의 후원금으로 진행되며, 한 달여 동안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많은 경험을 쌓고 새로운 세계를 배운다. 청년들은 여행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과 신앙의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

서의 봉사 경력을 중심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선발된 유스비전은 약 6개월 동안 여행 준비와 교육 및 신앙훈련을 받는다.

2025년 유스비전 30기에는 류시은, 박지훈, 윤지섭, 이채연, 조강림, 홍희선, 황주영 등 7명의 청년이 선발됐다. 29년 동안 영은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144명의 청년이 유럽 땅을 밟을 수 있었다. 새해에도 성도들의 든든한 기도와 후원을 기대한다.

유스비전 후원: 매월 1구좌 1만원

- ① 교회 목적 현금 혹은
- ② 계좌이체 : 국민 752601-04-257247(김명희 유스비전)

유스비전 멤버는 영은교회 청년부 출석과 교회 각 부

〈글 | 김명희 권사(유스비전 후원회)〉

영은교회가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글 | 한진구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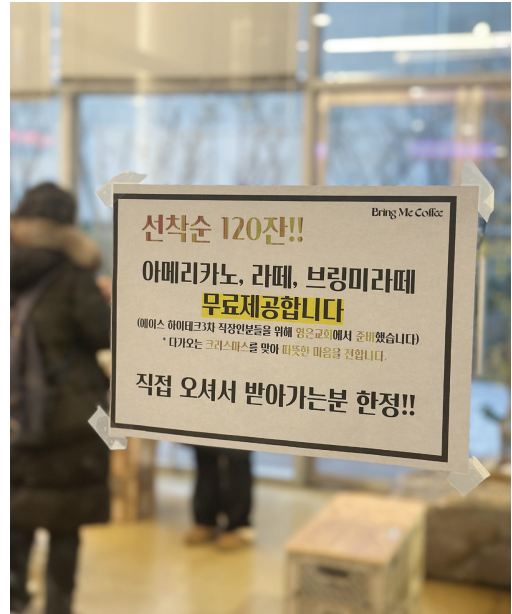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지역의 이웃들과 직장인들을 섬기고자 커피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4개 지역 카페[메가커피(양평역점), 더착한커피(양평역점), 브링미커피(양평점), 컴포즈커피(양평역점)]와 연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후원금을 지급하였고 성탄절 전 주간인 18일(수)부터 24일(화)까지 하루에 한 카페씩 양평동의 직장인들과 이웃 주민들에게 약 600여 잔의 커피를 무료로 선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성탄의 기쁨을 전하였습니다.

교인뿐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자 계획하였고,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며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은교회를 통하여 지역 사회에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은퇴 소감문

지난 2024년 12월 31일 3부 예배 중 은퇴식 및 명예추대식이 있었다. 이날 은퇴한 사람은 강진희, 이병덕, 송춘석, 민병일 안수집사 4명, 김애자, 양인순, 박혜숙, 한상순, 김순옥B, 황경자, 문계향, 박복선 등 권사 8명, 김수경 협동안수집사 1명, 장순제, 이규순 협동권사 2명, 이규철B, 허종필, 최순길, 이은기, 이동준, 이영순, 윤미영, 오정희, 이미재, 김명희E, 유경임, 채금선, 김희경B, 민병옥 등 남녀 서리집사 14명이며, 명예 안수집사로 추대받은 사람은 류갑호, 강선원, 김명도, 양순철, 김태형, 김수길 등 6명, 명예 권사로 추대받은 사람은 김은희, 박정숙, 박성심, 김명순C, 이경애B 등 5명이다.

다음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의 소감문이다.

강진희 은퇴안수집사



영은교회를 섬긴 지난 40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부족함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영은교회의 모든 성도

님들의 사랑 속에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제 교회 직분의 자리에서 내려오지만 나머지 삶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에게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사례하겠느냐?” 다만 무익한 종은 물러갈 뿐입니다. 은퇴 후에도 성도님들과 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까지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송춘석 은퇴안수집사



하나님, 항상 몸의 가시로 인해 힘들었지만 그로 인해 자족을 알게 하시고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퇴하는 나이라고는 하나 믿음에 은퇴가 있겠습니까. 저의 신앙 생활 중에 항상 찢림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그의 뜻대

이병덕 은퇴안수집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영은교회 안수집사로 세워주시고 성도님들과 교회를 섬길 수

로 행하는 자라야 되리라.”(마 7:21) 과연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어떠한 삶이 크리스천다운 삶인가. 앞으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정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의 터전이 되어준 영은교회와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병일 은퇴안수집사



할렐루야!!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받기만 했던 주님 은혜를 나누기 위해 이제부터는 뒤늦게 받은 전도폭발 훈련으로 복음 들고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적극 나가겠습니다.

교우님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애자 은퇴권사



지금까지 시무권사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섬겼던 시간들과 하나님의 은혜는 제 인생에 큰 축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양인순 은퇴권사



믿지 않은 가정에서 혼자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갈 때 엄마의 반대로 교회를 못 다녔으나 저의 마음속으로 어른이 되면 꼭 교회에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믿는 남편을 만나게 되어 영은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지내온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으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주 안에서 귀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여생을 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박혜숙 은퇴권사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실수한 것 상처도 있었지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사랑과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낮은 자리에서 다시 신앙의 일상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상순 은퇴권사



지금 이 순간에도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
사드립니다. 평생에 하나님
을 믿는 가정을 이루게 해주
시고 자녀들도 모두 신앙생
활을 한다는 것이 평범해 보

이지만 쉽지 않은 길임을 알고 있기에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48년 전 영은교회에 등록하여 단단한 믿
음 생활을 해서 무척이나 기쁜 하루하루였습니다.
은퇴라는 것이 믿기지 않지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끝까지 중보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늘 승리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의 자리에서 내려오지만 나의 남은 삶은 교회
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감
사함으로 주님께 충성된 삶으로 살겠습니다.

문계향 은퇴권사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인
도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
다. 연약한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직분을 주셨는
데 잘 섬기지 못하였습니
다. 은퇴 후에는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김순옥B 은퇴권사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을 처음 영접한 순간부터
지금 은퇴하는 이 순간까지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건강 허락해주
실 것도 기도하며 살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박복선 은퇴권사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좋은 영은교회로 인도해 주
시고 직분자로 서게 해 주
시고 그 직분 잘 감당하게
지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의 여정을 돌

아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쁨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퇴 후에도
섬김의 마음으로 교회와 나라와 믿음의 동역자들
을 위해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황경자 은퇴권사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
끌어주시고 시무권사로 세
워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
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시

교회언어 바로잡기



글 | 최광주 목사

교회에서 사용하는 잘못된 언어와 불필요한 말로 인해 성도들이 오해와 혼란을 겪고 시험에 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올바른 교회언어를 사용함으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신앙적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히 세우는 데 꼭 필요합니다. 다음의 몇 가지 예를 통해 교회언어를 바로잡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예배(×) → 예배(○)】

예배에는 대소(大小) 경중(輕重)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예배’라는 말을 쓴다면 논리적으로 ‘소예배’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진리로 예배드리는 데에 어떤 예배도 ‘대예배’나 ‘소예배’일 수 없으며 다만 ‘예배’일뿐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간별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 주일 낮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주일 오후예배 등이 가능합니다.

【예배하다(×) → 예배드리다(○)】

우리는 만유의 주재가 되시며 모든 피조물로부터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다’를 좀 더 존대하는 말로 바꾸어 ‘예배드리다’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다’는 말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다’, ‘간구하다’, ‘감사하다’ 등의 말도 존대하는 말로 바꾸어 ‘기도드리

다’, ‘간구드리다’, ‘감사드리다’로 고쳐 써야 합니다.

【사회자(×) → 인도자(○)】

‘사회자’란 일반적으로 어떤 회(會)에서 회무를 처리할 때 그 진행을 맡아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배는 회의가 아니므로 예배의 진행을 맡은 사람은 모든 회중과 더불어 예배가 잘 드러지도록 회중을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사회자’라 하지 말고, 예배 ‘인도자’라 해야 합니다.

【성가대(×) → 찬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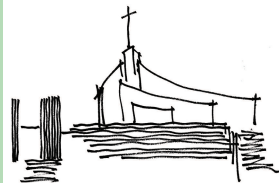
‘찬양’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고유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가’는 타종교에서도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가대’라는 말 대신 ‘찬양대’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준비찬송(×) → 찬송(○)】

찬송은 기도를 드리거나 말씀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찬송이 분위기를 가라앉히거나, 자리를 정돈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준비찬송’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찬송’으로 바꾸어 사용해야 합니다.

※ 출처-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기독교용어연구위원회)

영은설악센터 건축개념 <1>



1. 영은동산과 영은설악센터의 중심에 십자가를 놓다

영은설악센터만 놓고 보면 십자가 탑은 영은설악센터의 끝자락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은동산을 포함한 대지 전체를 보면 십자가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전체 대지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면, 방문한 사람들은 앞에 보이는 영은설악센터 뿐만 아니라, 십자가 너머의 영은동산의 존재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 십자가로의 길을 놓다

영은설악센터 공간계획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대지 중심에 놓인 십자가를 향한 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십자가로의 길’이라고 이름 짓고 그 길을 따라 공간들을 배치했습니다. ‘십자가로의 길’은 전체 내·외부 공간의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진입도로 → 주차장 → 오르막길 → 캠핑마당(오름계단) → 영은마당 → 주출입구 → 홀 → 복도(거울면투) → 엘리베이터(십자가) → 전망대 … 브릿지(아직 지어지지 않은) … 영은동산”으로 이어지는 길은 신앙의 여정을 공간으로 체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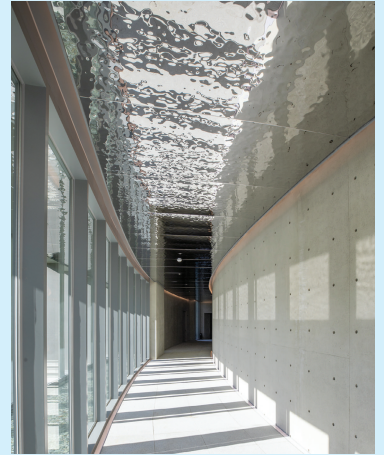
3. 땅의 높이에 따라 공간을 구분하다

영은설악센터 대지는 여러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영은동산 사이에 높이별로 공간을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높은 레벨로 올라갈수록 동적인 공간에서 정적인 공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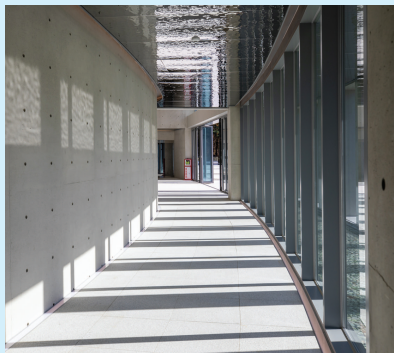
4. 좁은 길에서 십자가까지

영은설악센터에 도착하여 주차를 하고 오르막을 오르면, 캠핑마당과 오름계단 너머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캠핑마당을 끼고 우측 경사로를 올라가면, 양쪽 벽에 막힌 좁은 길로 표현되는 입구에 다다릅니다. 문이 열리고 빛으로 가득한 홀을 지나 세례를 상징하는 복도(거울연못+금속물결무늬 천장)를 통과하면, 십자가(엘리베이터 - 영은동산과 설악센터의 중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라 영은동산에 다다를 수 있는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이와 같은 동선의 경험은 십자가를 향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공간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5. 빛과 그림자에 따라 시간을 느낄 수 있는 공간

빛을 반사하지 않고 머금을 수 있는 노출 콘크리트, 석재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빛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그림자와 계절과 시간별로 달라지는 빛의 색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중앙 홀의 조명과 흰색 루버의 방향은 건물 가로 방향으로 설치하고 창호 프레임과 건물의 날개벽에 의해 그려지는 그림자는 건물의 세로 방향이 되게 하여 위와 아래가 서로 다른 방향의 선들이 나타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거울 연못에 의해 반사되는 물결은 노출콘크리트 벽에 비치며, 복도가 단순한 통로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물로 세례받는 체험의 공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글 | 한광호 건축사(예시건아이디엠)〉

새해 첫 예배



사진 : 허영준 기자

▶ 교회를 섬기는 분들

원로목사 허남기
 담임목사 이승구
 부목사 최광주 이준희 이예리아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찬양
 교육목사 전수현
 전도사 장미애
 교육전도사 나진희 박선민 황금성 김영락 김찬영
 김희창 황예찬 손예지
 파송선교사 구용회 백현이
 협동목사 소병찬 김규리

▶ 영은교회 예배시간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본 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4부 오후 1:30	
오후예배	오후 3:30	본 당
수요예배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본 당
금요심야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본 당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1층 영아부실
유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소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꿈자람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2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고등부	주일 오전 9: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청년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 영은교회 찾아오는 길



대한예수광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eun.or.kr

월간동행 e-mail : yemagazine@naver.com